태고종 원융회 "총무원장 연임제 강력 반대"

8월 31일, 천안 천왕사서 기자회견
지난해 부결 연임제 재추진 반발
현직 적용·재임 견제장치 요구
"과거 분규 아픔 되풀이 말아야"
개정규정, 새 총무원장 적용 제안

천안=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원융회는 8월 31일 천안 천왕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연임제 종헌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유재상 충청지사장

태고종 총무원장 연임제 도입을 둘러싼 종단 내부 갈등이 공개적인 반대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한 차례 중앙종회에서 부결됐던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안이 올해 다시 추진되자, 태고종 스님들의 모임인 원융회(회장 일로 스님)가 연임제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원융회는 8월 31일 천안 천왕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연임제 종헌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융회는 연임제 도입 자체의 타당성과 함께 현직 총무원장인 상진 스님에 대한 개정안 적용 여부, 장기 재임 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특히 연임제 자체와 현직 총무원장에 대한 적용 문제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융회는 "우리의 원칙은 현행 4년 단임제 유지와 연임제 개정 원안 반대"라면서 "설령 연임제를 논의하더라도 연임제 본칙과 현직 총무원장에 대한 즉시 적용은 반드시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종회에 "현행 4년 단임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면서 "최대 8년의 재임 가능성을 열려면 권한에 대한 견제·감시·책임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원융회는 △총무원장 연임을 위한 종헌·종법 개정 즉각 중단 △현직 총무원장에게 유리한 제도 변경이라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독립적인 논의 절차 보장 △특정 지도자의 연속 집권이 아닌 세대교체와 새로운 지도자 양성 관점에서 종단 미래 논의 △과거 태고종 분규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종단 제도와 운영의 근본적 성찰 등을 요구했다.

법사분과위원장 지담 스님은 "우리 종단은 특정 스님의 연임 문제로 상처가 너무나 깊고 후유증이 컸다"며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연임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로회의 부의장 성호 스님도 "과거 태고종 분규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융회는 연임제 개정안의 경과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원융회는 현직 총무원장은 개정 전 종헌에 따라 임기를 마치고, 개정된 연임 규정은 이후 새롭게 선출되는 총무원장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총무원 측은 연임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종책사업의 연속성과 종단 운영의 안정성을 제시하고 있다. 총무원장이 4년마다 교체될 경우 중장기 종책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종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편 태고종 중앙종회 법사분과위원회는 9월 1일 회의에서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임제 개정안은 9월 16일 열리는 중앙종회에서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제19대 종회 전국 본사서 10월 15일

9월 22~24일, 후보자 접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8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35차 회의를 열고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0월 15일 오후 1시부터 전국 교구본사에서 실시된다. 후보 등록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다. 후보자 자격심사는 10월 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직능대표 종회의원과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10월 12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관련 공고는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9월 15일자에 게재된다.

김내영 기자

월정사 주지 후보에 인광 스님

9월 1일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
"교구 대중과 공동체 안정 이끌 것"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제27대 주지 후보에 인광 스님이 선출됐다.

제4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적천 스님)는 9월 1일 대설법전에서 '본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선거인단 190명 중 161명의 구성원이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인광 스님이 119표를 얻어 주지 후보로 선출됐다. 기호 3번 설암 스님은 39표를 얻었고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2004년부터 22년여 동안 주지 소임을 맡았던 정념 스님이 지난 7월 31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교구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당초 인광·도완·설암·해공 스님 등 4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 과정에서 기호 2번 도완 스님이 '자격 없음' 결정을 받으면서 후보는 3명으로 압축됐다. 이어 산중총회를 하루 앞둔 8월 31일 기호 4번 해공 스님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인광 스님과 설암 스님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투표 결과는 인광 스님의 압도적인 우세로 나타났다.

인광 스님은 당선 직후 소감을 통해 "부족한 저에게 무거운 소임을 맡겨주신 4교구 대중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월정사와 오대산의 미래를 교구 대중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어른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대중 스님들의 수행과 삶을 존중하며 승가의 화합으로 교구의 안정을 이끌겠다"며 "지혜와 자비로 늘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산중총회에서 주지 후보로 선출된 인광 스님은 총무원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 월정사 주지로 취임하게 된다.

인광 스님은 정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93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9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강원과 율원을 거치며 교학과 수행의 기반을 다졌다. 상원사 감원, 국형사 주지, 월정사 총무국장 및 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원주 화엄선사 주지를 맡고 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9년 만의 경선, '안정' 택했다

경우 스님·진우 스님 양자대결
전국 교구 누비며 종도 표심 공략
승적 문제 등으로 공방 격화도
원로의장 "흑색선전은 파화합"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진우 스님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9년 만에 복수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는 후보 등록 단계부터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3파전으로 출발했지만, 기호 2번 정념 스님이 중도 사퇴하면서 1번 경우 스님과 3번 진우 스님의 양자대결로 재편됐다.

이번 선거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오랜 기간 사실상 단일후보 추대 방식으로 진행돼 온 상황에서 치러진 경선이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진우 스님이 단독후보로 당선된 데 이어 이번에도 현직 총무원장의 연임 도전이 예고됐지만, 월정사 주지를 지낸 정념 스님과 선운사 주지를 지낸 경우 스님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 구도가 형성됐다.

8월 11일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경우 스님은 기호 1번, 정념 스님은 기호 2번, 진우 스님은 기호 3번을 배정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고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단하면서 3파전은 공식화됐다.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된 240명 등 모두 321명으로 구성됐다.

초반 선거전의 화두는 '변화'와 '안정'이었다. 현직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간의 종단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종단 운영과 새로운 도약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경우 스님과 정념 스님은 종단 운영의 변화와 혁신, 교구 중심의 종단 운영 등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세 후보는 수행과 전법, 교구 활성화, 승가복지,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을 놓고 종책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8월 24일 정념 스님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선거 구도는 급변했다. 정념 스님은 후보 사퇴와 함께 경우 스님 지지를 선언하며 '종권 교체'와 종단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경우 스님과 진우 스님의 양자대결로 압축되면서 선거전은 더욱 본격화됐다. 두 후보는 전국 교구본사를 찾아 종도들을 직접 만나며 자신이 구상하는 종단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경우 스님은 '불교 대도약의 시대, 교구와 함께 열겠습니다'를 전면에 내걸었다. 전통 수행 가풍을 시대정신으로 승화하고 교구 중심의 획기적인 종단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과 AI시대 대응, 불교문화 르네상스, 청년 전법과 세계화, 승가복지,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등을 주요 기조로 제시했다. 특히 선운사에서의 교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교구가 살아야 종단이 산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현직 총무원장으로서 지난 4년간의 종단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에서 도약으로'라는 방향을 내세웠다. 총무원장으로서 구축한 종단 행정과 대외 협력 기반을 토대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종단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 간 공방도 거칠어졌다. 특히 진우 스님의 승적과 수계 경위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후보 자격과 종단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종회의원과 종도들은 진우 스님의 구족계 수계 경위와 승적, 피선거권 등을 문제 삼으며 검증을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후보 모두에 대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계종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선거를 앞두고 종단 안팎에서는 금권·관권·조직 동원 선거를 경계하고 종책 중심의 선거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는 유시를 통해 후보들에게 원융과 화합의 모범적인 선거를 당부했다.

자광 대종사도 유시를 내려 "승가의 근본은 원융이며, 승가의 생명은 화합"이라며 무분별한 흑색선전과 비방을 경계했다. 특히 종단의 화합을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면서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거를 주문했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변화와 안정, 교구 중심의 종단 운영과 현 집행부의 연속성을 둘러싼 경쟁 끝에 진우 스님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德崇叢林 修德寺
方丈 達河 愚松
叢林大衆一同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www.sudeoksa.com
전화 041)330-7700 팩스 330-7702
선 수행 템플스테이 전화 041)330-7789
(sudeoksa@daum.net)
수덕사노인요양원 전화 041)338-7711
사회복지법인 修德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지 진각
사부대중일동

